

실현가능한 정책입안시급



박무홍
에이텔 IS사업부장

“
주로 심야에 이용하는 PC통신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백억의 자금을
PC통신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 것을까
”

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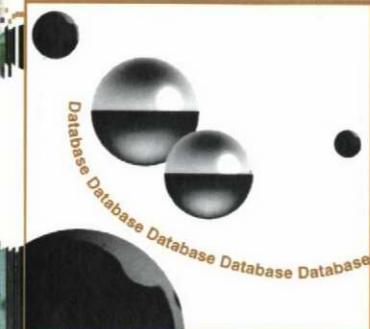
국내에 정보통신산업이 시작된지 불과 10년 남짓 되었나보다.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현 데이콤)에서 Dialog, JOIS 등 해외의 유수 데이터뱅크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Packet Network인 DNS를 서비스하므로써 열리게 된 국내의 정보통신산업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요즘은 국민학생들도 PC통신이니 사이버스페이스니 데이터베이스니 하는 말들을 그리 낯설게 느끼지 않으니 격세지감이

있다.

사실 십년 전 필자가 한국데이터통신(주)에서 초창기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설문조사를 위해 반송우표를 함께 보내면 “DB사업부”가 엉뚱하게 “DB사업부”나 “빌딩사업부”로 돌아오기도 하고(이 친구가 분명 데이터베이스를 거꾸로 쓴 것일거라고 추측하고), 비디오텍스 사업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 다닐 때면 으레 무슨 비디오테일 판매사원으로 오해하여 묘한 눈길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현재까지 오게 된 데에는



특집

4. 정보이용 저변화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

물론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한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어려 있지 만 또한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대중매체 특히 신문과 잡지의 영향이 컸다. 근자에 들어서는 Internet에 대한 집중보도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이 한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보산업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에 관한 한 후진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꽂 꾀울 수 있는 기반은 어느정도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KETEL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PC통신은 '90년대 중반기에 X세대의 새로 운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70년대에 "기타를 못치면 간첩"이라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PC통신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로 바뀔 정도로 PC통신은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입시와 산업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창 구역할을 해 주는 이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면서 어찌보면 문화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채팅에 열을 올리는 것이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3백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미국의 컴퓨터브의 예를 들면 피크타임일 지라도 채팅실에는 수십명 밖에 없지만 10분의 1도 안되는 우리나라의 PC통신 채팅실에는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상당기간 그 충격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디오문화가 들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따라서 이런 PC통신의 역기능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해결책일 것이다.

강력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본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얘기들일 것 같아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을까?

데이터베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정책은 있으며, 있다면 그 방향은 맞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한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세울만한 변변한 데이터베이

스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PC통신이 봄을 일으키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자(흔히 정보제공자 또는 IP라고들 부르지만)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재미삼아 또는 재테크의 보조수단으로 잠깐 보고 지나가는 소위 Instant 데이터베이스들이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엄연히 데이터베이스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것이다. 이런 고급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신문지상에 큼직한 정보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그것도 실효성면에서는 의문이 더 많은 것이 개인적 느낌이다)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자금이나 무슨 기금이니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또한 다들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진정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Seed Money로서의 역할 수행이 되도록 최상의 운영이 절실하다.

또한 모두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올 것이니 그 때에는 우리가 정보의 예속국으로 전락해

서는 안된다고 응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7-80년대에 사회간 접자본이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보여 줬던 강력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힘은 예전과 같지 않은데 혹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기간산업을 아직까지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이용자 저변확대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PC통신이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PC통신이란 서비스 자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뿐리가 BBS (Bulletin Board System)인 만큼 데이터베이스 위주라기보다는 통신위주의 사업이다. 현재 국내의 각 PC통신이 데이터베이스와 BBS간의 사용비율 2:8이란 숫자가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4대 PC통신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천여개에 달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정보제공업체(IP) 역시 2천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Instant 데이터베이스이고 이익을 남기는 데이터베이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IP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라 좋

은 정보를 만들어 놓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그래서 이런 IP들은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 PC통신사업자에 대한 압력 단체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PC통신사업자 역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불가능할 뿐더러 썩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된다. 데이터베이스란 그 특성 자체가 많은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IP의 어려움을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부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개발 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공정성, 실효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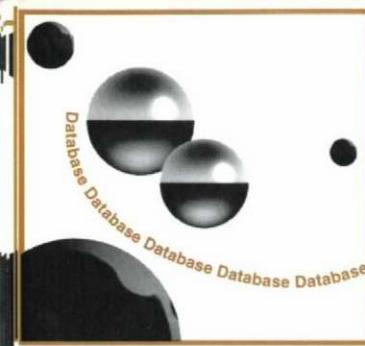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 PC통신사업자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현성이 부족한 직접적인 IP지원을 통한 방법보다는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 개발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용자층의 확대도 절실

그리고 현재 BBS 위주의 서

비스를 데이터베이스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PC통신 이용자의 연령층을 지금보다 10살 이상 올릴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 PC통신 서비스는 10대 및 20대 초반이 주도를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올해 들어 국내 PC통신이용자는 갑자기 정체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10대 및 20대 시장을 중심으로 팽창해 왔지만 올해 들어 이제는 그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군대에 가거나 직장을 가지면서 일정 부분이 빠져 나가고 대신에 그만한 부분이 밑에서부터 들어와 올해들어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작년 말부터 가입자 증가속도가 급속히 느려진 것이다. 따라서 BBS를 주로 이용하는 10대 및 20대 초반의 이용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20대 후반 및 3-40대 이용자 확보에 노력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구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이들은 졸업, 취직, 결혼, 출산, 이직, 이사 등 주변 환경변화가 매우 많은 특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절실히 요구됨)나 전문데이터베이스



개발도 힘쓰야 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PC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접근경로 정비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40대 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10대 및 20대 그룹에서 빠져나오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서서히 저변을 넓혀나가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PC통신사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겠다.

결언

이상을 정리해보면 데이터베

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PC통신 서비스의 역할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잠재시장을 열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P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PC통신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PC통신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백억의 자금(사실 전화 수요가 거의 없는 야간에 집중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설비증설의 부담이 없는 일종의 낙전수입이나 다름없는 수익)을 PC통신사업자의 통신원 가 부담을 덜어 주는데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제안해 본다.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베이스,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향후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꽃이 될 데이터베이스개발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DC**



〈그림 1〉 국내 PC통신시장의 성장 모형

